

대학 산업디자인학과의 교육현황과 개선방안

정 경 원

한국과학기술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1. 머리말

대학 산업디자인(Industrial Design : 이하 ID라고 표기함) 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크게 부각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형성되고 있는 디자인 붐(Design Boom)과 관련지어 유능한 디자인 인력을 양성·배출해야만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디자인을 국가 경쟁력 증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디자인 붐은 매스컴을 통하여 매우 빠르고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금년 들어 TV와 신문 등에서 디자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MBC TV에서는 '왜 디자인인가?'라는 제목으로 디자인의 중요성을 일반 생활인의 시각에서 다룬 교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다. KBS 1TV에서는 지난 5월 좀더 심도있게 ID를 주제로 다룬 '디자인에 승부를 걸어라'라는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하

여 주 1회씩 4주 동안 방영했다. 이 보도 특집 다큐멘터리는 무한경쟁시대를 대비하는 지혜와 방법론을 ID에서 찾을 수 있다는 데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의 3편인 '신국부론'에서는 외국 ID교육의 성공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여 디자인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새삼스럽게 ID교육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산업 수준이 디자인을 적극 활용해야만 하는 단계에 도달해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즉, 이제는 외국 제품의 무분별한 모방이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 : OEM) 방식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디자인을 개발해야만 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낮은 생산 코스트와 저렴한 인건비에 의존하여 만들어진 값싼 제품을 대량으로 수출하는 방법으로는 '국경없는 경제'(borderless economy) 시대의 요구에 대응할 수 없다. 선진국의 견제와 후발 개발도상국의 추격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ID를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아

야 하는 당위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섬유, 신발 등과 같은 경공업 제품의 경우, 같은 성능이라면 디자인이 경쟁력의 70% 이상을 좌우하고, 자동차와 같은 중공업도 역시 같은 성능이라면 경쟁력의 50%가 디자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¹⁾

이상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유능한 산업 디자이너를 길러내기 위한 ID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디자인의 질적 수준은 디자이너 개인의 창의력과 조형능력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다른 어느 분야 못지 않게 ID 분야에서는 대학교육의 질이 중요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ID 교육이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와 같은 지적 중에는 ID 교육이 너무 예능계 미술교육 위주로 이루어짐에 따라 현대 산업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ID라는 용어가 산업디자인 이외에 시각디자인과 환경디자인과 같은 다른 전문 영역을 포괄하는 것처럼 사용되는 데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ID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많았지만, 정작 왜 그와 같은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진단이나 개선방안의 제시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ID 교육의 현황을 다각적으로 고찰하여 몇 가지 주요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개념상의 혼란

ID라는 용어는 원래부터 많은 개념상의 혼란을 유발시켜 왔다. 이 용어로 대표되는 활동이 '산업 제품을 위한 디자인'인지 아니면 '산업을 위한 디자인'을 모두 의미하는지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래 영국에서 '산업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Industry)이라고 불리던 이 용어를 처음 '산업 디자인'으로 부른 사람은 미국인 조셉 사이넬(Josep Sinel)로 알려지고 있다.²⁾ 1919년경 사이넬은 조그만 디자인 사무소를 개설하고 편지지에 '산업디자인'이라는 표기를 하였으나, 그가 산업 제품의 디자인 업무에 전념하였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그와 같은 현상은 1930년대 중반에 영국에서도 나타났다. 1935년에 '산업디자인 파트너십'(Industrial Design Partnership: IDP)이라는 이름의 디자인 합명회사가 생겼다. '상공업적 목적에 적합한 디자인을 기업에 제공하는 미술인의 조직'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던 IDP는 산업제품을 디자인할 수 있는 기회를 고대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래픽, 포장, 디스플레이 디자인을 위주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ID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디자인 분야의 업무를 다루고 있었다.³⁾

ID라는 용어가 산업제품을 디자인하는 활동으로 한정되어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가던 무렵이었다. 1944년 미국에서는 '산업디자인협회'(Society of Industrial Designers: SID)가 발족되었다.⁴⁾ SID는 공산품의

1) 박수일, "산업디자인과 경쟁력", 『조선일보』, 1994. 4. 22일자.

2) Arthur J. Pulos, *American Design Ethic: A History of Industrial Design*, (Cambridge: The MIP Press, 1986), p. 275.

3) John & Avril Blake 지음, 정경원 옮김, 『현대디자인의 현실과 이상』 (미진사, 1984), pp. 26~30.

4) Penny Sparke, *Consultant Design: The History and Practice of the Designer in Industry*, (Pembroke

디자인을 위주로 하는 전문디자이너들이 상호 교류와 권익 옹호를 위해 결성한 전문 단체였다. 같은 해 12월 영국에서는 '산업디자인 심의회'(Council of Industrial Design : CoID)가 설립되었다. CoID의 설립목적은 전쟁이 끝난 다음 영국의 제조업체들이 당면하게 될 공산품의 디자인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⁵⁾ 이때부터 ID는 '산업을 위한 디자인 활동'을 의미하는 보통명사가 아니라 '산업제품을 위한 디자인 활동'을 주로 하는 전문분야를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되었다. 그 결과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ID는 대량생산되는 공산품의 기능과 형태의 조화를 도모하는 창의적인 분야를 의미하는 세계공통어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 분야를 대표하는 세계 기구의 명칭도 '세계 산업디자인 단체 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Societies of Industrial Designers : ICSID)이다. 다만 비영어문화권에서는 ID를 자국어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조금 다르게 표기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工業デザイン'이라고 하고, 타이완에서는 '產品設計'라고 한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산업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산업과 관련된 디자인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초창기에 선진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산업디자인이 심각한 개념상의 혼란을 겪고 있다. 우선 ID에 대한 우리말 표기가 상황에 따라 '산업디자인' 또는 '공업디자인'으로 혼용되고 있다. 이 경우 공업디자인은 일본식 표기라는 지적도 있지만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커다란 문제는 산업디자인이라는 용어 속에 시각, 환경디자인 등 디자인의 여러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산업

디자인 포장진흥법」으로부터 생겨나고 있다. 동법의 제2조에는 ID의 개념과 범위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산업디자인은 제품의 미, 기능 및 경제적 가치를 최적화 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행위를 말하며,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시각디자인을 포함함.⁶⁾

제품의 가치를 최적화한다는 명제에도 불구하고 ID보다도 더 넓은 분야라고 할 수 있는 환경디자인과 시각디자인을 내포하고 있는 모순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동 법에서는 산업디자인을 구성하는 세 가지 분야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품디자인 : 산업기기, 정밀기기, 수송기기, 전자정보기기, 생활용품 등의 디자인

환경디자인 : 건축물, 조경, 도시계획, 환경 조형물 등의 디자인

시각디자인 : 광고디자인, 출판디자인, 포장디자인, 기획 및 상품이미지 통합계획 등.⁷⁾

우선 건축물, 조경, 도시계획 등과 같이 광범위한 대상을 디자인하는 환경디자인이라는 분야가 어떻게 제품의 가치를 최적화하는 산업디자인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까? 제품을 거시적인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의 하나로 간주하고 그와 같은 문제를 다루는 분야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마땅히 '환경제품디자인' 또는 '제품 - 환경체계디자인' 등과 같이 명확한 한계를 설정해야만 전문성을 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광고, 출판, 포장디자인 등과 같이 평면적인 매체의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디자인 활동을 대변하는 시각디자인을 산업디자인의

Press, 1983), pp. 34~35.

5) CoID는 공산품의 디자인과 깊은 관련이 있는 엔지니어링 디자인을 포용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1970년 디자인 심의회(Design Council)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6)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산업디자인 및 포장기술 연구개발·진흥 5개년 계획(1991~1995), p. 1.

7) 전제서, p. 1.

범주에 묶어 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히려 그와 같이 폭넓고 광범위한 디자인의 여러 분야를 진흥하기 위한 법이라면 마땅히 「디자인 진흥법」이 되어야만 한다. 산업디자인 분야에 대한 곡해와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원인이 진흥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선진국에서도 수십 년간에 걸친 우여곡절 끝에 ID라는 용어가 전문 분야의 명칭으로 자리잡게 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산업디자인의 올바른 개념정립을 위한 전기가 될 만한 일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먼저 지난 1970년대 초부터 '한국 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 협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던 ID 전문단체가 1993년부터 '한국 산업디자이너 협회'로 개명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가 '산업디자이너'로 자리를 잡는 데 무려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이에 따라 동 협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게 되면서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산업디자인'에 대한 해묵은 의미상의 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현황과 문제점

1) 역사 및 학과 개설 현황

우리나라에서 디자인 교육이 처음 실시된 것은 1946년 국립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도안과가 설치된 데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ID교육이 처음 시작된 것은 동 대학교 대학원 응용미술과에 '공업미술전공'이 개설된 1968년의 일이다. 1950년대 후반에 미국 일리노이 대학 공과대학에서 ID를 수학한 민철홍이 주축이 되어 '공업미술'이라는 이름으로나마 ID교육이 시작된 것이다. 이어 1972년에는 동 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에 공업디자인 전공이 개설되어 학부과정에서도 본격적으로 ID교육이 시작되었다. 이처

럼 전공단위로 교육이 되던 ID가 학과 단위로 발전된 것은 1980년대에 이르러서이다. 1983년 국민대에서 국내 최초로 공업디자인학과가 개설된 데 이어 홍익대에도 공업디자인과가 설치되었다. 1985년에는 국책적으로 설립된 과학영재교육기관인 한국과학기술대학에 산업디자인학과가 설치되어 ID교육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크게 고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어 울산대학교에서도 ID학과의 명칭이 산업디자인학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서울대를 비롯한 많은 대학에서는 산업디자인과 또는 산업디자인학과라는 명칭 아래 시각디자인 전공, 공업디자인 전공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경우 산업디자인과 공업디자인이 모두 ID를 나타내는 동의어이므로 차별화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대학에서도 ID교육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극심한 용어상의 혼란을 거쳐왔음을 알 수 있다. 도안 - 응용미술 - 공업미술(공업도안) - 공업디자인 - 산업디자인 순으로 ID 교육을 실시하는 전공이나 명칭이 변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직도 전국에서 ID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을 명확히 밝혀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에서 제시한 명칭말고도 산업미술, 생활미술, 응용미술 등과 같은 용어로 ID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D를 산업디자인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대학교육에서도 의미있는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1994년 홍익대에서 공업디자인과를 산업디자인학과로 개칭한 것이 다른 대학의 학과 명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4년 현재 전국 4년제 대학의 ID 관련학과의 개설현황은 뒤의 <표 1>과 같다.

2) 교과과정 편성 및 운용

ID 교육의 질적 수준은 교과과정의 편성 및 운용 방법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ID 교육과정에서는 특히 다양한 교과목의 조화와 균형이 요구된다. ID는 산업제품의 심미적, 기능적, 상징적 가치를

〈표 1〉 전국대학 ID 관련학과 개설 현황

학 과 명	학교수	대학별 내역(학년별 정원)	(단위:명) 비 고
공업디자인학과 (80)	2	계명대(40), 국민대(40)	ID
산업디자인과 (186)	5	전북대(40), 서울대(35), 영남대(40), 조선대(30), 서원대(40)	ID+VD
산업디자인학과 (1,145)	28	강원대(40), 군산대(40), 제주대(40), 창원대(30), 서울시립대(30), 건국대(40), 건국대(충주:60), 경기대(35), 경남대(50), 대구대(40), 동덕여대(40), 경희대(용인:40), 명지대(80), 서울여대(40), 동의대(40), 울산대(50), 중앙대(안성:50), 성균관대(수원:40), 강남대(40), 대한체육과학대(40), 청주대(60), 호남대(40), 국제대(40), 한성대(40), 동서공대(40), 피어선대(40), 한국과학기술원(30), 홍익대(60)	ID 또는 ID+VD
조형공학 (30)	1	한국기술교육대학(30)	ID
계 (1,441)	36		

* VD : Visual Communication Design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프트 사이언스로서 과학기술, 조형예술, 인문학의 성격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ICSID에서 ID 교육내용은 일반과목(information) 50%, 조형과목(formation) 35%, 의사전달과목(communication) 15%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반과목은 수학, 물리학, 심리학, 인간공학(ergonomics), 경제학, 마케팅, 역사 등과 같은 교과목을 의미한다. 조형과목에는 기초디자인, 제품디자인, 시스템디자인 등과 같은 전문실기과목은 물론 실습장에서의 실습이 포함된다. 의사전달과목은 소묘, 제도, 모형제작 등과 같은 평면 및 입체적인 표현활동과 작문, 회화, 사진학 등과 같은 과목이다.

미국 유일의 ID 전문단체인 IDSA에서는 좀더 세부화된 교육내용을 권장하고 있다. 동 협회는 ID 전문가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내용을 말에 의한 의사전달과목, 인문과학, 자연과학, 행동과학과 사회과학, 미술 및 디자인사, 산업디자인 전공과목,

미술 및 디자인, 기타 등의 10가지로 대별하고 각 이수비율을 뒤의 〈표 2〉와 같이 지정하였다.

IDSA에서는 〈표 2〉에 명시된 내용과 부합되도록 교과과정을 편성, 운용하고 있는 학교만을 선정하여 인정을 하는 평가시스템을 실시함으로써 ID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왔다. IDSA의 회장을 역임한 아더 J. 플로스 교수는 1960년대까지 미국 내에는 140여 개의 대학에서 ID를 교육하였으나 1980년대부터 IDSA의 학과 평가시스템이 시작되면서 협회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학과들이 문을 닫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협회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학과에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도태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IDSA가 1984년부터 국립미술 및 디자인 학교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s of Art and Design : NASAD)와 상호협정을 맺고 채택한 평가기준에는 교과과정 편성은 물론 세부적인 교육내용과 시설 등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표 2〉 IDSA가 제시하고 있는 ID 교과 이수 비율

교과목구분	교과목명칭	%
말에 의한 의사전달과목	응변, 스피치, 영어, 저널리즘, 상업편지 작성법 등	5
인문과학	문학, 철학, 역사, 외국어, 고전, 윤리학, 영화와 연극 등	7
자연과학	수학, 물리학, 화학, 컴퓨터사이언스, 기구학 등	7
행동과학과 사회과학	심리학, 인류학, 경제학, 마케팅, 사회학, 정치학, 법학 등	7
역사	미술사, 디자인사	5
ID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그래픽디자인, 공간계획, 응용과학, 인간공학, 재료 및 공정 등	20
미술과디자인	기초디자인, 소묘, 색채학, 렌더링 등	15
기타	프로그램의 교육목표에 따라 선택	34
계		100

〈표 3〉 NASAD에서 규정하고 있는 ID 교육과정의 교과목별 비율

교과구분	산업디자인 전공과목	기술, 시각예술 등 디자인 지원과목	미술사, 디자인사	일반교양 및 선택	계
학점 (%)	35~49 (25~35)	35~42 (25~30)	14~21 (10~15)	35~42 (25~30)	119~154 (85~110)

* 미국의 경우 5년제 학부과정에서 산업디자인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많음.

NASAD가 제시하고 있는 ID 교육과정 편성비율은 〈표 3〉과 같다.

1994년 현재 IDSA의 회원명부(directory)에 수록된 ID학과는 모두 43개교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 IDSA/NASAD의 평가기준에 부합되어 협회의 공인을 받은 학과는 33개교에 지나지 않는다.⁸⁾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D학과들이 미국의 전문협회인 IDSA의 평가기준에 비추어 어떤 수준에 도달해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물론 미국의 기준이 국내의 현실과 다르다고 할는지 모르나, 국제적인 성격을 갖는 ID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뒤의 〈표 4〉는 IDSA의 기준과 서울대, 홍익대, 한국과학기술원 ID학과의 교과과정을 비교한 것이다.

〈표 4〉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국내 우수 ID학과

의 교과과정 편성은 전체적으로는 IDSA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세부적으로는 다소 편중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 예로 세 학교에서 모두 인문학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기준보다 2.5배, 과기대는 2.1배, 홍익대는 1.6배나 높다. 자연과학 과목의 경우에는 미술 계열인 서울대는 기준의 30%, 홍익대는 40%만 이수시키고 있다. 반면에 이공계열인 과기원은 기준보다 2.8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사 및 디자인사의 경우, 서울대는 기준과 부합되는 반면 홍익대와 과기대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서울대와 홍익대는 모두 산업디자인 과목과 미술 및 디자인 과목을 기준보다 훨씬 더 많이 개설하고 있다. 그것은 곧 미술계열인 두 학교에서는 디자인 실기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8) IDSA, 1993~1994 Directory of Industrial Designers, p. xxii.

〈표 4〉 IDSA의 기준과 국내 우수 ID학과의 교과과정 비교

교과목 구분	IDSA 기준	학점(%)		
		서울대	홍익대	KAIST
언어에 의한 의사전달과목	7.0 (5)	6 (4.3)	4 (2.9)	6 (4.3)
인문학	9.8 (7)	24(17.1)	16(11.4)	21 (15)
행동과학 및 사회과학	9.8 (7)	9 (6.4)	4 (2.9)	9 (6.4)
자연과학	9.8 (7)	3 (2.1)	4 (2.9)	28 (20)
미술사·디자인사	7.0 (5)	8 (5.7)	2 (1.4)	3 (2.1)
산업디자인 전공과목	28.0 (20)	28 (20)	34(24.2)	27(19.3)
미술·디자인	21.0 (15)	30(21.4)	36(25.7)	23(16.4)
기타	47.6 (34)	32 (23)	40(28.6)	23(16.4)
계	140.0(100)	140(100)	140(100)	140(100)

* 여기에서는 4년간 140학점을 이수하는 학사과정용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전공 필수교과목의 명칭에서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대와 홍익대는 유사한 반면 과기원은 아주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서울대는 공업디자인 1, 2, 3, 4로, 홍익대학교도 공업디자인 1, 2, 제품디자인 1, 2, 3, 4 등으로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숫자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과기원에서는 제품디자인 기초 -- 제품디자인 요소 -- 제품디자인 프로그램 -- 제품디자인 시스템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교과목에서 주로 이수해야 하는 내용을 암시해 주고 있다.

이상에서 고찰해 본 바와 같이 국내 우수의 3개 학과는 모두 나름대로 소속되어 있는 대학의 특성에 부합되는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다. 다만 미술 계열의 두 학과에서는 ID의 기능적인 속성과 깊은 관련이 있는 자연과학 및 공학과목의 비중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3~4학년 동안 이수하는 전공실기과목이 ‘공업디자인’,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운송기기 디자인’, ‘실내디자인’ 등으로 세분화 되어있다. 반면에 과기원의 경우는 자

연과학과 공학의 비중이 높아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접근은 용이하지만, 미술사 및 디자인사의 비중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3) 국내 ID 교육의 제 문제

1970년대부터 전국의 대학과 학과의 신설이 급속히 늘어났다. 1971년에는 71개 대학에 188개의 학과가 있었으나, 1994년에는 131개 대학에 557개 학과로 늘어났다. 이같은 현상은 대학이 양적 성장과 재정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학과 신설을 추진하고 교육부마저 대학전학열을 충족시키려고 이를 묵인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⁹⁾

ID 교육에서는 특히 그와 같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앞서서도 고찰한 바와 같이 ID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정립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갖가지 명칭으로 많은 학과들이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ID 교육을 하는 학과의 명칭이 산업디자인과, 산업디자인학과, 공업디자인학과,

9) 최영훈, “대학 유사학과 통폐합: 편법 증원 - 비효율에 쫓기”, 『동아일보』, 1994. 7. 27.

산업미술과, 생활미술과, 응용미술과, 조형공학과 등으로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교과과정 또한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 없이 담당교수의 취향에 따라 편성되고 있는 문제를 낳고 있다. 또한 교과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교과목의 교육목표나 방법 등에 대해서도 확실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에서 펴낸 『산업디자인 및 포장기술 연구개발·진흥 5개년 계획(1991~1995)』에는 우리나라 ID 교육의 문제점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 공예, 응용미술 등 미술의 한 분야로 인식. 대부분 예능계열의 '미술대학'에 소속되어 있으며 미술중심의 실기위주로 학생을 선발
 - 첨단과학기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곤란
 - 종합적인 문제해결능력보다 미술적 자질을 강조
 - 개인 중심의 작가 교육, 비실무적인 정서 교육으로 흐름 우려
- 미술 실기 중심으로 교과과정이 운용되고, '미술학사' 학위 수여
 - 재료공학, 생산공학, CAD/CAM, 마케팅 등 제품디자인에 종합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교과목 부족
 - 산업현장에서 생산과정을 배우거나 산업체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기교육을 받는 등 산업과 밀착된 실질적인 교과운영 결여
 - 교수진의 산업디자인 실무경력도 부족
- 첨단 과학이나 생산공학 등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실험 실습 시설 부족¹⁰⁾

또 한 가지 문제는 산업계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ID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요를 정확히 알아내기는 어렵지만 매년 약 860여 명의 졸업생이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ID만을 교육하는 공업디자인학과와 산업디자인학과의 학년별 정원이 260명이고, VD와 ID를 교육하는 산업디자인(학)과의 정원이 1,200명이므로 그 중 반수의 학생이 ID를 전공한다고 할 때 600명 정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산업미술과, 응용미술과 등과 같이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와 산업대학교(구 개방대학)에서 배출되는 인원을 합치면 그 숫자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매년 대학을 마치고도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는 졸업생의 숫자가 누증될 것으로 예측된다. 기업의 디자인 부서는 많은 인원이 소요되는 생산부서와는 달리 '소수정예' 원칙으로 인원을 보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ID 전공학과가 양적인 면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앞 절에서 고찰해 본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43개교에서 ID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도 ID 전공학과는 10여 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엄격한 학과 평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만 한다. 영국 왕립디자이너 협회(Chartered Society of Designers : CSD)에서는 ID 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하고 있다. 협회의 회원 중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여 각 대학 ID학과의 교육내용을 평가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시험관'(examiner)으로 임명된 사람은 자신이 맡은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내용은 물론 졸업예정자 개인의 디자인 실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CSD에 보고한다. CSD에서는 그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학생의 졸업여부와 자격증(diploma)의 수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바로 그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에 대학 ID 교육의 질적 수준이 유지되는 것이다.

10)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 전게서, pp. 24~25.

4. 개선방향

앞 절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국내 ID 교육은 몇 가지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와 같은 문제점은 단적으로 '양적인 팽창에 못 미치는 질적 성숙' 이라고 표현될 수 있다. 불과 2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36개교에서 산업디자인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으니, 교육과정 편성이나 유능한 교수의 확보 등에서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몇 학교의 교과과정 편성에 대한 비교·평가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나라 ID교육은 나름대로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대학마다 ID 교육의 특성화와 차별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서는 국내 ID 교육의 개선 방향을 학과의 명칭, 체제, 그리고 교육의 내실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1) 학과의 명칭

ID학과의 명칭은 '산업디자인학과'로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창기에는 비록 ID의 개념에 대한 혼란으로 인하여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웠지만 이제는 ID가 곧 산업디자인으로 굳혀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내에서 대구대, 울산대, 한국과학기술원이 '산업디자인학과' 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홍익대도 1994년도부터 그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산업디자인학과라는 명칭 아래 공업디자인 전공과 시각디자인 전공을 설치하고 있는 경향도 불식되어야만 한다. 두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나가기 위해서도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부득이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냥 디자인학과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디자인학과 내에 시각디자인 전공과 산업디자인 전공으로 하게 되면 용어상의 혼란은 곧바로 해소될 수 있게 될 것이다.

2) 학과의 체제

체제면에서는 독립학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국내에서도 지나치게 세분화된 학과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산업디자인학의 경우는 예외가 되어야 한다. 산업디자인학과는 학부과정에서부터 독립적인 학과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에서도 고찰한 바와 같이 산업디자인학은 과학, 공학, 조형예술의 성격을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디자이너는 고도로 숙련된 전문기량(professional skills)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업디자인 교육의 역사가 깊은 미국의 경우에는 학부과정에서 5년제를 채택하고 있는 학교가 적지 않다. 학부에서 전문적인 기량을 갖춘 산업디자이너로서의 자질을 연마한 다음 대학원에서 좀더 심도있는 학문적 연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는 석사학위가 이 분야의 최종학위로 인정받고 있지만 점차 박사학위과정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데 대한 대비도 해야 할 것이다.

3) 교육의 내실

균형잡힌 교과과정의 편성, 새로운 학문적 흐름의 올바른 수용, 자질을 갖춘 교수진의 확보 등을 통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과과정의 편성에서는 특히 ID 교육의 일반적인 틀을 견지하면서 학과 나름의 특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수많은 교과목들이 서로 유기적인 연계를 이루면서 심화·발전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편성하는 것이 교육의 내실에도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냐는 것보다, 그 과목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느냐는 것이다.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교과목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내용이 명시된 교수요목(syllabus)이 작성되어야 한다. 단지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교과목을 통해 학생들이 무엇을 얻어야 하며,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교수요목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ID 교육에 열정을 갖고 있는 교수진이 있어야 한다. 교수의 열정이 '전염병'과 같이 번져서 교실을 면학의 열기로 달아오르게 해야만 비로소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5. 맺는 말

ID 교육의 내실을 도모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산업디자이너를 육성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범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도 ID 교육의 내실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필자가 지난 겨울방학 동안 40여 일간 KBS 1TV의 취재팀과 함께 '디자인에 승부를 걸어라'라는 특집 다큐멘터리의 제작을 위해 세계일주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점을 실감할 수 있었다. 영국,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제 제품의 경쟁력에서 기술 못지 않게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학 ID 교육의 특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타이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멕시코 등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도 우수디자인 전공자를 선발하여 국비로 선진국에 ID 연수를 보내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설립되는 공과대학에 ID 학과를 설치하여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새로운 유형의 교육

을 실시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은 우리 대학 ID 교육의 질적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를 암시하는 것이다. 특히 1996년으로 예정된 교육 개방과 함께 외국대학의 국내 진출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만 한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전문협회의 역할에 눈을 돌려야만 할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의 예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전문협회가 나름대로 ID 교육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처럼 협회 차원에서 ID 교육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또한 영국처럼 자격을 갖춘 시험관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대학 산업디자인 교육평가제도'(가칭)를 조속히 수립·시행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ID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그것이 곧 다변화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 ID 교육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

정경원/서울대학교 산업디자인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시라큐스 대학에서 석사, 영국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 대학교에서 디자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미래의 경쟁, 디자인에 달려 있다』 등의 저서와 *Design Management Journal* (미국)에 수록된 2편의 논문이 있다.